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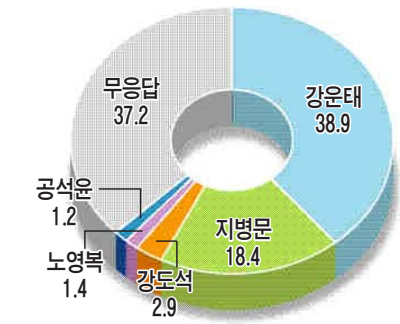
총선 D-7 광주·전남 5개 격전지 후보별 지지율

광주일보·KBC 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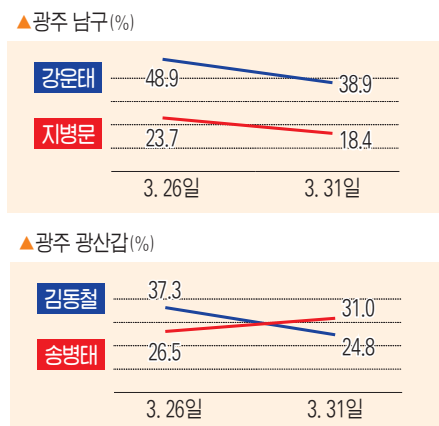
무안·신안 이희호 여사 방문후 김홍업 선두로

광주일보와 KBC광주방송이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광주·전남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당'보다는 '인물'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특정 정당의 독주체제가 사실상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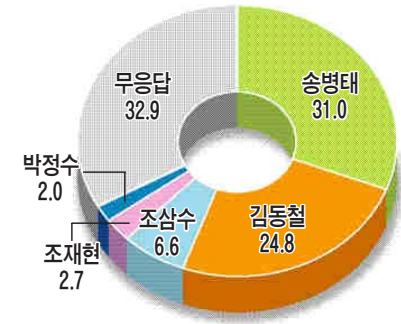
■ 광주 남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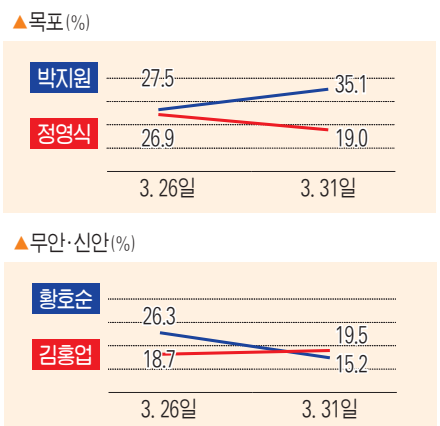
◇ 후보별 지지율 변화 추이 (광주일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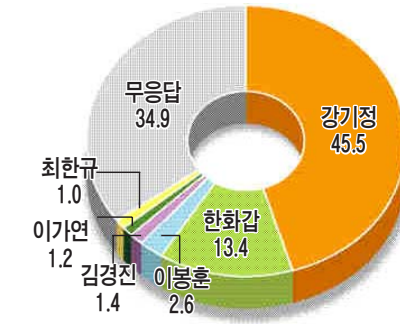
■ 광주 광산구 갑 (%)



▲ 광주 광산구 갑 (%)



■ 광주 북구 갑 (%)



의 정치적 고향인 이곳 목포에선 DJ의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가. 민주당 공천 탈락에 반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상열 의원은 10.5%로, 정 전 행정부 차관을 바짝 따라붙고 있다.

무안·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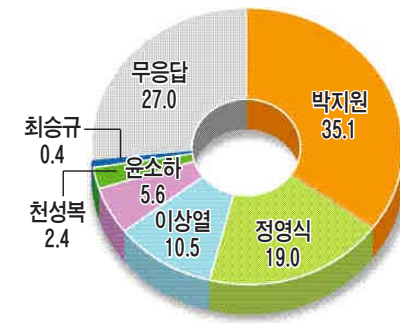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의원이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뒤늦게 민주당 공천자 대열에 합류한 황호순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선 김 의원이 19.5%의 지지율로, 황 전 사무부총장에게 4.3%포인트 차이로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응답률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광주 남구가 53.8%로 가장 높았다. 북구갑 52.7%, 목포 46.6%, 광산갑 44.1% 순이었다. 무안은 43.1%였다.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무안 8.6%였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4~5% 수준에 그쳤다.

응답률은 26.5%로 지난 26일 광주일보 조사 때의 19.6% 보다 6.9%포인트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무안·신안 31.4%, 남구 29.1%, 목포 26.6%, 광주 북구갑 26.1%, 광산구갑 21.4%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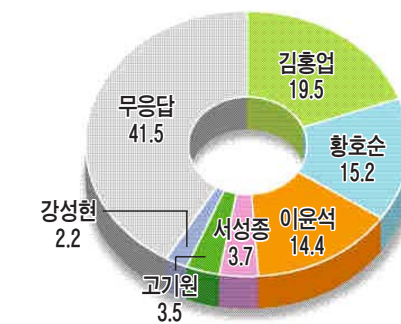
■ 목포 (%)



◇ 타기관 여론조사 결과

Table with 4 columns: Candidate, Party, Date, Support Rate. Rows include Gwangju Nam-gu, Gwangju Gwangsan-gu A, Gwangju Buk-gu A, and Mokpo.

■ 무안·신안 (%)



▲ 광주 광산구 갑

Table with 4 columns: Candidate, Party, Date, Support Rate. Rows include Kim Dong-cheol and Song Byung-tae.

▲ 목포시

Table with 4 columns: Candidate, Party, Date, Support Rate. Rows include Park Ji-won and Jeong Yeong-sik.

▲ 무안·신안

Table with 4 columns: Candidate, Party, Date, Support Rate. Rows include Kim Hong-up and Hwang Ho-sun.

여론조사 들쭉날쭉

조사 기관따라 편차 크고 순위 바뀌기도

4·9총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조사결과가 들쭉날쭉해 유권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똑같은 지역구를 조사한 결과라 하더라도 편차가 적지 않은데다, 심지어는 순위가 바뀌는 극단적인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광주 광산구 갑 선거구. 광주일보와 KBC광주방송이 공동으로 리서치엔리 서치에 의뢰, 지난달 3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광산구갑에서는 무소속인 송병태 전 구청장이 31.0%의 지지율을 얻어 민주당 김동철 의원을 6.2%포인트 앞섰다. 그러나 같은 날 광주KBS가 미대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송 전 구청장이 21.4%를 얻어 김 의원보다 오히려 14.7%포인트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2% 앞선다는 것이 오차범위(±4.9%) 이내인데다 설문 내용과 조사원 질문방법, 조사 시간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 의원이 최근의 각 여론조사에서 계속 앞서있었고 특별한 계기가 없었다면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다"면서 "무응답이 32.9%에 이르는 만큼 '참고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타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박승환 후보와 무소속 김세연 후보가 경합 중인 부산 금정구의 경우 지난달 19일 조선일보·SBS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가 1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다음날 발표된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거꾸로 박 의원이 12.4%포인트 앞섰다. 불과 하루 사이에 23.4%포인트가 왔다 갔다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여론조사기관 담당자는 "6. /총행기기사 redplane@kwangju.co.kr

/총행기기사 redplane@

광주 남구 강운태 우세 꾸준히 유지. 광산구 갑 오차 범위내 선두 각축전. 북구갑 한화갑, 강기정 추격 진땀. 목포시 박지원, 2위 격차 더 벌려.

광주 남구 강운태 우세 꾸준히 유지. 광산구 갑 오차 범위내 선두 각축전. 북구갑 한화갑, 강기정 추격 진땀. 목포시 박지원, 2위 격차 더 벌려.

광주 북구갑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후보등록 마감 시한에 맞춰 출사표를 던지면서 파란이 일었던 선거구다.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10여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공천을 따낸 현역 강기정 의원이 맞붙어 한 치 양보 없는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선 강 의원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5%의 지지율을 얻

려, 13.4%를 확보한 한 후보를 크게 앞섰다. 한 후보는 전국적인 인지도와 압도적인 중앙량감을 무기삼아 막판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아직까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확실한 조직기반을 갖춘 강 의원은 중앙의 거물급 인사를 맞아 조금도 풀리지 않고 오히려 판세를 리드하며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무소속으로 출마, 전국적인 관심 선거구로 떠오른 곳이다. 박 전 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35.1%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 경쟁후보인 민주당의 정영식 전 행정부 차관을 16.1%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박 전 실장은 지난달 26일 광주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정 전 행정부 차관을 불과 0.6%포인트 앞서는 데 그쳤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여론조사 실시되기 직전 목포를 방문, 박 전 비서실장에 대한 지지유세를 펼친 것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

Large advertisement for '2008 Gwangju Ho-Nam Arts Festival' (2008 호남예술제) featuring a collage of artists and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festival's schedule, location, and contact details.